



요르크 밀러글 · 그림
김라합 옮김

책속의 책속의 찹쌀

비룡소



드디어 네가 선물 포장을 뜯는구나.
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다니, 정말 다행이다.
선물 포장 속에 있는 게 책이라는 걸 년 벌써 눈치 챌겠지.



이제 책을 들고 있구나.

참 신기하지? 책 속에 네가 그려져 있어. 바로 이 방에서 이 책을 들고 있는 네 모습이 말이야.

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인걸!

점점 작아지는 책 속의 책에 네가 있고, 또 네가 있고…….

지금쯤 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. '하지만 똑같은데, 뭐. 책 속에 있는 이 토끼는 뭐지?'



아, 뒤돌아볼 것 없어. 돌아봐도 토끼는 없으니까.
그림에 나온 너처럼 거울에 비춰서 책을 들여다볼 때만 토끼가 나오는 걸까, 궁금하지?



참, 욕실에 커다란 거울이 있었지.



거울에 비춰 봐도 네 뒤에는 토끼가 없지?
이 그림이 조금 잘못되었나 봐.



책 겉표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구나.
겉표지의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작은 그림인지 과연 네가 찾아낼 수 있을까?
책상에서 돌보기까지 가져다가 보고 있네.



그런데도 끝이 안 보이지?

어떤 게 가장 마지막 책인지 알아볼 수 있겠니?

끝에 있는 책이 앞에 있는 책들이랑 똑같다면 그건 마지막 책일 리가 없어.

똑같은 책들만 보인다면, 이 그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마지막 책은 뭔가 달라야지, 안 그러면 마지막 책이 아니라는 거지. 돋보기로 봐도 소용없으면……

내가 책을 펼치면 책 속의 나도 책을 펼쳐요!

책을 펼친 아이는 다른 세계에
발을 들여 놓게 됩니다.
한발 한발 다른 세계에 깊숙이
들어가던 아이가 길의 맨 끝에서
만나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?
책 바깥세상으로 나오려는데
길을 잃었다고요? 걱정 마세요.
3D 입체 안경을 쓰고 보면 신기하게
먼 길까지 잘 보일 거예요.

요르크 뤼러의 그림책

- 74. 나는 공인 채로 있고 싶은데...
- 76. 토끼들의 섬
- 110. 두 섬 이야기



9 788949 111209 77850
ISBN 89-491-1120-9
ISBN 89-491-1000-8
www.bir.co.kr 값 10,000원